OH MIN

신체와 움직임, 소리와 음악에 관한 작업을 해 온 오민의 개인전 〈오민: 초청자, 참석자, 부재자〉(7.31~10.18)가 플랫폼엘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오민은 음악의 언어를 퍼포먼스, 영상, 설치 등의 시각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전환하기 위한 실험적인 사유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작업들을 통해 보편적인 음악이 부재한 상황을 설정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듣는다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해답을 구한다.

오민은 1975년 출생했다. 서울대에서 피아노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예일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모르스브로이 미술관, 플렛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포항시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국제갤러리, 아뜰리에 에르메스, 독일 에르푸르트 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전시를 열었다. 네덜란드 국립미술원과 삼성문화재단 파리 국제 예술공동체에서 거주 작가로 활동했으며 2017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사진 박홍순

오민이 실험하는 음악의 조건

신예슬 | 음악비평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을 읽는다. 책 표면을 뚫을 듯 응시하고, 이쪽저쪽을 뒤적여보고, 책을 손가락으로 들어 그 무게감을 느끼고,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탄성을 느끼고, 한 페이지에 멈춰서 알 수 없는 생각이 펼쳐지도록 내버려둔다. 그 책은 알렉세이에게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마침내 빛이 어두워지자 그 책은 읽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된다. 듣기 힘든 소리에 익숙해지기 위해 눈과 귀를 훈련하는 작업, 〈알렉세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부재자, 참석자, 초청자[1]

〈오민: 부재자, 참석자, 초청자〉는 신체와 움직임, 소리와 음악에 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오민의 최근작을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전시는 〈참석자〉와 〈알렉세이〉 영상, 〈초청자〉 라이브 공연 영상기록, 이를 둘러싼 스코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 기간에는 〈물질과 시간〉이라는 제목 아래 묶인 스크리닝·공연·토크, 그리고 〈412356〉이라는 신작의 스크리닝·공연도 열렸다.

이들 작업의 목표는 제각각이지만 모두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간명하지만 거대한 물음은 누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접근하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길로 향하지만, 오민은 특별히 세 요인을 짚어 음악에 접근한다. 오민에게 음악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소리와 시간, 그리고 관계다.

〈부재자〉는 그중에서도 '소리'라는 요소에 특히 집중한다. 알렉세이가 읽기 어렵거나 읽을 수 없는 책을 읽었다면 데이빗과 앤, 케빈, 나탈리, 그리고 아리스티드는 들을 수 없거나 듣기 어려운 음악 5곡을 연주한다. 각 곡은 침묵을 구성한다는 목적하에 쉼표로만 이루어진 음악을 제시하며, 묵독하듯 마음속에서만 읽어나갈 음악을 보여준다. 주제 없는 변주들만을 들려주며 음악적 차원에서 '네거티브 사운드'를 형성하고, 몸의 움직임이 소리에 우선하는 음악을 만들고,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소리를 듣기 어렵게 만들어둔 상황에 여러 명의 연주가를 배치해 고난도의 '합주'를 제안한다. 소리가 나지 않거나 듣기 어려운 음악. 그럼에도 계속되는 연주와 듣기.

이 장면을 보여주는 영상 〈참석자〉는 음악 〈부재자〉를, 라이브 퍼포먼스 〈초청자〉는 영상 〈참석자〉를 감싸 안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공간의 구성요소를 끊임없이 조형하며 〈참석자〉의 설치를 전환한 〈초청자〉는 전작보다 더욱 가변적이면서도 확장된 무대를 구성했다. 〈초청자〉에서 공간 전체를 종횡무진 걸어 다닌 안무가/무용가들은 케이블을 정리하고 가벽과 프로젝터와 스크린의 위치를 바꾸며 관객을 쉼 없이 이동시켰다. 소리, 화면, 장비의 위치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관객은 이런저런 구조물을 피해 최적의 시청 위치를 스스로 찾아가야만 했다. 관객은 공연자의 동선에 반응하며 〈초청자〉 공연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만드는 거대한 주체가 됐다. 무대와 객석, 공연자와 비공연자는 모호하게 뒤엉켰다. 공연자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영상이 재생될 때의 공간 세팅은 '공연장'이라기보다 일시적으로나마 전시공간의 형태를 구현한 것에 가까웠다. 그런 면에서 〈초청자〉는 때때로 '전시'를 시간축 위에 올려놓고 공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작업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질문과 스코어는 전시장 3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시간이 선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이곳저곳에서 각자의 방향대로 흐르고, 제각각의 공간에서 각자의 템포에 따라 흘러가며 존재했던 이 방은 오민의 뇌리를 떠도는 말과 이미지들을 공간에 펼쳐놓은 것에 가까워 보였다.

물질과 시간

한 음악가는 작곡이란 한 손에 시간, 한 손에 소리를 쥐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말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시간은 음악의 중요한 '재료'일 것이다. 음악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대상이 아니다. 시간은 적극적으로 조작되고 재구성된다. 때로 그 구성된 시간 자체, 그리고 시간 위에서 형성된 구조적 관계는 음악의 감상대상이 된다.

〈부재자〉에서 오민이 점검한 조건이 '소리'였다면, 8월 8일에 장장 여섯 시간 동안 연이어 진행된 스크리닝·공연·토크 프로그램 〈물질과 시간〉은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스크리닝에서 소개된 작품은 마우리치오 카젤 〈슈타트테아터〉 '레퍼토어'와 온드레이 아다메크 〈카라쿠리 인형〉으로 "음악에서 소리 간 관계를 구성하던 문법을 형과 행위로 확장"한 것들이었다. 이 두 곡은 여기서 감상할 것이 '구성'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소리 바깥으로 끄집어냈다.

이후 공연된 곡들은 "음악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재료를 뒤집거나 반대로 생경한 외부의 요소를 음악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담긴" 작품들이었다. 악기의 물성을 극대화해 들려주는 헬무트 라헨만 〈프레시옹〉과 얀 로뱅 〈드라프트〉와 의미의 틈새에 끼어드는 잡음에

〈참석자〉 2채널 영상 20분 20초 2019

〈412356〉 9월 5일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퍼포먼스 광경

주목한 문석민의 〈이제〉를 지나, 소리와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부재자〉와 다양한 사물의 표면과 움직임을 통해 음악을 시도하는 문석민과 조형준의 〈변주〉에 도달하는 그 흐름은 음악의 재료가 어디로 이동해가는지를 가리키는 듯했다.

김재리(무용이론가), 문석민(작곡가), 신예슬(음악비평가), 오민(미술작가), 이한범(미술비평가), 정세영(공연예술작가), 정지돈(소설가), 조형준(안무가) 총 8인이 함께 한 토크는 시간예술에서 시간에 대해 논했다. '러닝타임' 문제부터 그 안에서 모종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방식, 구조의 원형, 작품 안의 시간과 관객이 경험하는 시간, 시간감각 등의 주제들이 서로 교차하며 다뤄졌다.

412356

오민은 그가 생각하는 음악의 조건 중 마지막 요소인 '시간'을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접근한다. 개념으로서의 시간, 구성으로서의 시간, 그리고 수행으로서의 시간. 서로 다른 이 세 종류의 시간과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부재자〉 〈참석자〉 〈초청자〉를 위한 스코어〉
단채널 영상 22분 46초, 13분 18초,
1분 3초, 1분 22초, 2분 37초(각) 2020

이유는 피아노 연주자였으나 현재는 미술 작가이고, 때로는 공동 작곡으로 작업에 참여하는 오민의 정체성들이 작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412356〉은 9월 5일에 공연된 신작으로, 시간에 대한 최근의 생각이 차곡차곡 누적되어 만들어진 작업이다. 우선 오민은 숨소리를 내거나(관악기), 무언가를 치거나(타악기), 문지르는(찰악기) 행위로 구성된 3성부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을 만들었다. 이후 그는 이 장면들에서 소리와 이미지를 분리하고, 영상에서 소리와 이미지의 관계, 영상과 라이브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다르게 배열해서 〈412356〉을 만들었다. 첫 부분에서는 이미지와 소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3성부 연주 영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마치 폴리 사운드를 녹음하는 과정처럼 3성부를 각각 영상과 라이브, 시간만 남은 타이머로 분리해 공연·상영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장면을 시야 바깥으로 보내놓은 채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려주는 식이었다.

한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시공에 배열한 〈412356〉은 '지금-여기', 즉 현재라는 시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절해보기 위한 모종의 실험이었을 것이다. 일견 이는 전작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작업에 계속해서 출몰하던 주제들이 한자리에서 매우 첨예한 상태로 교차하는 형태였다. 수행자의 신체에 대한 주목에서 시작된 오민의 작업은 구조 연구로 이어졌다가, 수행으로 되돌아와 연습이라는 영역에 오래 머물렀고,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여러 작업에 도달해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들을 하나씩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공연자의 신체는 긴급한 시공간에 놓여있고, 눈과 귀, 인식은 계속해서 훈련되며, 신체와 움직임, 소리와 음악의 구조에 대한 관심은 〈412356〉에서도 여전히 제각각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민은 음악의 표면을 뚫을 듯 응시하고, 여러 층을 뒤적여보고, 음악을 악보에서 들어내 그 형상을 살펴보고, 음악 안의 관계를 살펴본다. 음악은 오민에게 질문을 이끌어내고, 어떤 사건이든 실험해볼 수 있는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음악에 대한 집요한 질문은 계속해서 다른 크고 작은 주제를 경유하며 이어져갈 것이다. 앞선 것들과 계속해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상승하는 그 작업의 프로세스는 끝없이 전개되어 나가는 음악의 모양과도 닮아있다.

1 신예슬, 오민 〈초청자〉 리뷰, 미발표 원고 중 일부 발췌